

2016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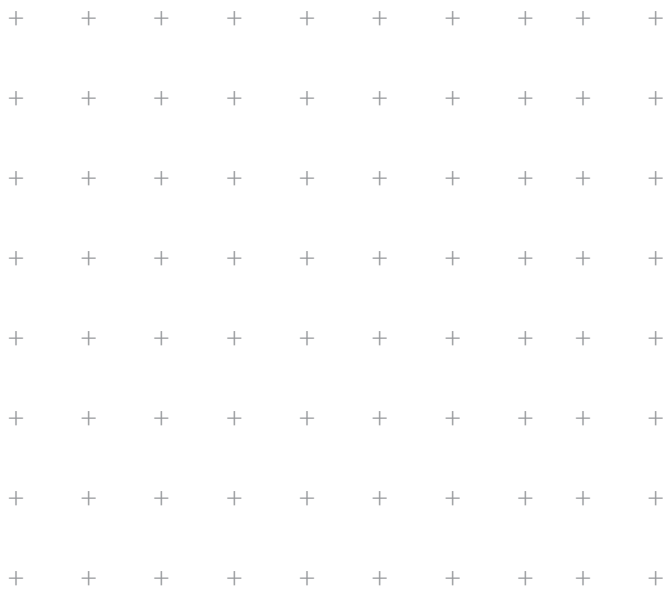
# Brief

2016. 10. 13

집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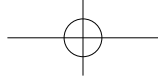
조경옥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적 함의



Jeonbuk  
Institute





2016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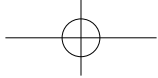
정책브리프 2016년 10월13일 vol.10 발행인\_강현직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프는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CONTENTS

###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적 함의

1. 조사목적 및 개요 .....	04
2. 주요 조사결과 .....	05
1) 영농활동 특성 및 농가소득 .....	05
2) 농외소득 활동과 의향 .....	08
3) 여성농업인의 인식과 지역사회 활동 .....	09
4) 여성농업인의 정책욕구 .....	11
3. 정책적 함의 및 향후과제 .....	12
1)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을 위한 공동경영인등록제도 활성화 .....	12
2) 여성농업인의 역할확대에 따른 40~50대 전문인력화 필요 .....	13
3)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정비 .....	13
4)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	14
5) 농촌여성자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추진 .....	15

※ 이 자료는 전북연구원 정책과제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 SUMMARY

## | 요약 |

-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개방화 농정 등 농업·농촌사회의 변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농가주부, 생산보조자에서 대안적 농업노동력과 농산업경영자로 역할과 비중이 확대됨. 따라서 향후 농업핵심인력인 여성농업인 경영능력과 활동성과에 따라 농촌발전과 위상은 매우 달라질 것임
- 전라북도 민선6기 도정 3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삼락농정'과 '제4차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2016~2020)'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관련 기초자료가 필요하지만 전라북도 지역차원 자료는 전무한 상황임. 이에 본 조사에서는 전북 최초로 여성농업인이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 정책육구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여성농업인의 주력품목으로는 논벼(35.6%), 일반밭작물(22.4%), 과수(10.8%) 등의 순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고소득작목인 과수와 시설채소 비중이 큼. 연간 농가소득이 3000만원 이상은 36.5%이고 500만원미만은 18.6%로 주로 60세 이상에서 많음. 월 평균 가계지출은 100~199만원이 44.1%로 가장 많았음
-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참가율은 66.8%로 분야별로는 농산물판매(39.7%)와 농업임금노동(20.3%)이 많고 향후 농외소득 참여의사는 49세 이하와 50대에서 농산물판매와 농산물 가공이 많음. 농외소득 활동 애로사항으로는 시간부족(21.9%) 응답율이 높지만 농외소득 활동의향이 높은 49세 이하에서는 기회 및 정보부족 등을 거론하고 있어 관련 교육지원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에 대해서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은 55.0%이고 39.3%가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농업활동 관련 의사결정 참여는 낮은 수준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자산은 예금통장(69.5%)이 가장 많고 농지나 가옥 등 부동산의 70%는 남편 명의여서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은 농업에서의 전문가를 희망하고(3.30점)새로운 농업기술 및 정보에 관심이 많으며(3.35점)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의사를(3.34점) 갖는 등 농업 및 사회활동에 긍정적임. 한편, 여성농업인의 권익활동에 관련 된 단체가입율은 저조한 편이지만 50대를 중심으로 적극적 활동을 보이고 있어 여성농업인 단체간 교류와 협력활동을 통해 역량강화 필요
- 농촌사회 개선사항으로는 건강 및 의료서비스(37.6%)가 가장 많고 여성농업인에게 시급한 과제로는 경제사회적 지위향상(23.8%)과 복지시설 및 제도확충(22.4%)으로 조사됨
-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 및 향후 추진과제를 제안함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을 위한 공동경영인등록제도 활성화
  - 여성농업인의 역할확대에 따른 40~50대 전문인력화 필요
  -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등 제도정비
  -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 농촌여성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추진



##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적 함의

# 04

### 1. 조사목적 및 개요

#### □ 조사목적

-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개방화 농정으로 인하여 농업의 효율화와 고부가 가치 농업이 추진되면서 농업의 '6차산업화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이 인식되고 농산물가공과 농촌관광, 교육농장 등 연관 사업에 여성농업인이 경쟁력 있는 인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농업과 농촌사회의 변화는 전라북도 정책추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쳐 민선6기 도정 3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 '삼락농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정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여성농업인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배제하고는 농업정책의 균형 잡힌 지속성과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또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의거하여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2016~2020)'이 수립·시행되고 있어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지역특성 및 여성농업인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전라북도 최초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전북여성농업인이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 정책욕구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구체화 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 조사내용

- 본 조사에서는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분석을 위해 5가지 분야에 걸쳐 조사를 실시함. 영농 및 농외소득활동 분야(세부조사문항 28문항), 교육참여 및 지역사회활동(16문항), 삶의 질과 복지 분야(14문항), 여성농업인의 정책욕구(35문항), 여성농업인 인적 및 영농특성(18문항) 등 포괄적으로 조사함. 조사문항은 '2013년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의 문항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함.
- 이 가운데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야를 재구성하여 영농특성 및 농가소득, 농외소득 활동과 의향, 농업 및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여성농업인의 정책욕구 등을 중심으로 분석·기술함

#### □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조사시점에서 최소 만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전북지역의 19세~69세 미만 의 여성농업인<sup>1)</sup> 295명
- 조사시기 : 2016년 4월 20일~ 2016년 5월 1일(12일 간)
- 자료수집 : 전북연구원 조사원을 활용하여 농가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

1) 여성농업인의 정의는 최소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15세 이상 여성, 논밭 등 경지를 10a이상 직접경작하고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가임

## 2. 주요 조사결과

### 1) 영농활동 특성 및 농가소득

#### □ 주력품목

- 전북 여성농업인의 주력농업은 논벼(35.6%) > 일반밭작물(22.4%) > 과수(10.8%) > 노지채소(9.2%) > 축산(6.4%) > 화훼 및 특수작물(6.2%) > 시설채소(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농가의 주력 품목은 고소득 작목인 과수와 시설채소의 비중이 크고 일반 밭작물은 60대 이상에서 높은 편임
- 연간 농산물의 판매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과수, 시설채소, 화훼·특작, 축산물을 주력으로 하는 농가는 많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논벼, 노지채소, 일반밭작물보다 과수, 시설채소, 화훼·특작, 축산이 고소득 작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음

〈표 1〉 응답자 특성별 농사주력품목

(단위 : %)

구분	N	논벼	과수	노지채소	시설채소	일반밭작물	화훼 및 특수작물	축산	기타	
계	295	35.6	10.8	9.2	6.1	22.4	6.2	6.4	3.4	
연령	49세 이하	52	40.4	15.4	7.7	7.7	15.4	3.8	5.8	3.8
	50대	133	31.6	9.8	11.3	8.3	21.1	5.3	9.8	3.0
	60대	110	38.2	10.0	7.3	2.7	27.3	8.2	2.7	3.6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500만원 미만	55	30.9	3.6	20.0	1.8	32.7	3.6	-	7.3
	500~2,999만원	87	41.4	6.9	5.7	3.4	32.2	4.5	3.4	2.3
	3,000만원 이상	153	34.0	15.7	7.2	9.2	13.1	7.8	10.5	2.6

주. 연간 농산물 판매구분은 기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500만원 미만은 소농, 500~3000만원 미만은 중농, 3000만원 이상은 대농으로 구분하고 있는 분류기준을 따름

#### □ 농업활동 분야별 담당정도

-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중요 담당자이지만 농업관련 의사결정 참여는 낮은 편이고, 가사노동에서는 담당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음
- 농업활동 담당정도에 있어서는 여성농업인은 농산물생산, 생산작물 결정 등 주로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분야에서의 담당 비중이 높은 반면 농지 및 기계구입과 농업용 대출과 상환결정 등 재무활동에서의 의사결정 관여도는 낮은 편임
- 한편, 가사노동은 절대적으로 여성의 담당비율이 높아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과중함을 반영하고 있음

〈표 2〉 농업활동 및 가사노동 분담율

(단위 : %)

구분		주로 내가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고용노동자	하지 않음	여성참여
생산·출하	생산작물 결정	16.6	39.0	41.7	1.7	1.0	55.6
	농산물 생산	16.6	42.0	39.0	1.7	0.7	58.6
	출하·판매	15.3	30.8	51.2	1.0	1.7	46.1
재무의사결정	농업용 대출/상환결정	13.0	23.5	50.9	1.4	11.3	36.5
	농지 및 기계 구입	7.2	18.8	59.7	0.3	14.0	26.0
	생활용 금전관리	30.6	34.7	33.7	1.0	-	65.3
가사노동		70.0	25.9	3.4	0.7	-	95.9

주. 여성참여는 '내가 주로, 나와 남편 둘이 비슷'의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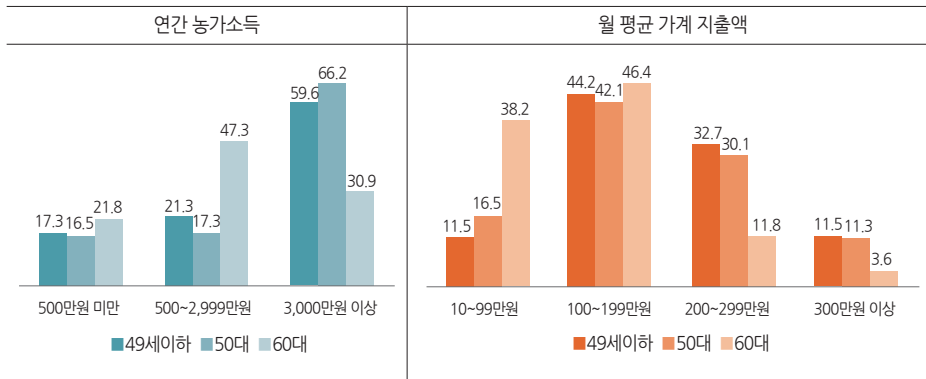
□ 연간 농가소득 및 월평균 가계 지출액

○ 연간 농가소득<sup>2)</sup>은 최저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연령대별로 큰 편차를 보임

- 농가의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8.6%, 500~2,999만원은 44.7%, 3,000만 원 이상은 36.5%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3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영세농가는 본 조사에서는 63.3%로 이는 전국여성농업인 실태조사(2013)의 79.1%와 농림어업총조사(2010)의 87.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500만 원 이하의 낮은 소득은 연령이 높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으며 3,000만 원 이상은 5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연간 농가소득 및 월 평균 가계지출액

(단위 : 명, %)



○ 여성농업인의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계 지출액<sup>3)</sup>은 100~199만원이 44.1%로 가장 많음

-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100만원 미만이 38.2%, 100~199만원 미만이 46.4%로 고령층에서의 200만원 미만의 가계 지출은 84.6%에 이르고 있어 영세한 고령농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2) 농가소득은 농업생산의 계절성으로 인하여 농업소득을 월 평균 수입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에 2013년 전국여성농업인조사부터는 농업소득을 가능하는 대체항목으로 "연간 농산물 총 판매금액"을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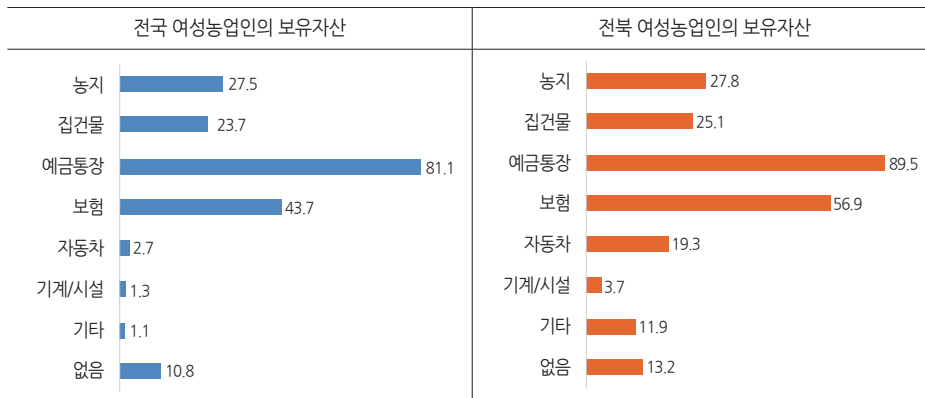
3) 월 평균 가계지출액은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전기 및 수도비, 교통통신비, 보험 및 연금 등을 포함함

□ 여성농업인의 보유자산

○ 전북 여성농업인이 본인명으로 되어 있는 자산으로는 예금통장이 가장 많고 농지 및 주택 등의 보유는 적음

- 여성농업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보유자산은 예금통장이 6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은 56.9%, 농지는 27.8%, 집·건물은 25.1%, 자동차는 19.3%임.
- 본인명의로 자산이 없는 경우는 13.2%로 전국여성농업인실태조사(2013)결과와 비교하여 전북이 2.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전국 및 전북 여성농업인 명의의 보유자산 현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13. 자료: 전북연구원, 2016 전북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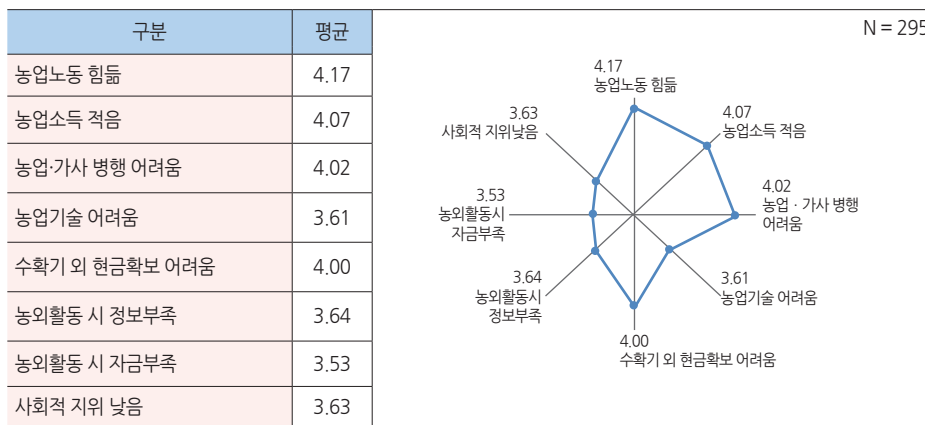
□ 농업활동에서의 어려움

○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농업노동이 힘들고 농업소득이 적음을 거론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 느끼는 어려움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

-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농업노동의 힘들고 농업소득이 적은 경제적인 이유로 농촌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영농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50대는 농업·가사병행의 어려움을 40대는 농업 외 활동 시 정보부족과 농업 외 활동을 위한 자금부족 등을 논하고 있음

〈표 5〉 농업활동에서의 어려움

(단위 : 명, 점)



주. N은 오차범위 ±1. 평균값은 1에 가까울수록 견해힘들지 않다. 5에 가까울수록 매우힘들다

07

## 2) 농외소득 활동과 의향

### □ 농외소득 활동 참여 현황

○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의 현재 농외소득활동 참가율은 66.8%로 분야별로는 농산물판매(39.7%)와 농업임금노동(20.3%), 농산물가공(18.6%) 비중이 높고 농촌관광(6.1%)은 낮음

- 농산물판매활동은 연령이 낮고 영농규모가 클수록 참여율이 높음
- 농업임금노동은 40대와 60대에서 영농규모가 중규모에서 참여율이 높아 영세농의 현실이 반영되고 있음

〈표 6〉 농외소득 활동참여 현황(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활동 있음	활동 유형							
		농산물 가공	농산물 판매	농촌 관광 사업	자영업	일반 직장 취업	시간제 근무	농업 임금 노동	
계	197	18.6	39.7	6.1	15.6	7.8	12.2	20.3	
연령	49세 이하	38	25.0	44.2	15.4	25.0	15.4	15.4	19.2
	50대	92	18.8	40.6	5.3	18.8	9.8	15.0	16.5
	60대	67	15.5	36.4	2.7	7.3	1.8	7.3	25.5
영 농 규 모	소농	36	18.2	25.5	3.6	16.4	20.0	20.0	20.0
	중농	58	17.2	37.9	5.7	10.3	8.0	12.6	21.8
	대농	103	19.6	45.8	7.2	12.1	3.3	9.2	19.6

주. 영농규모는 본문의 <표 1>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한 것임

### □ 향후 농외소득 활동의향 및 참여분야

○ 향후 농외소득 활동 의향 정도 (5점 척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향후 참여의사가 높은 농외소득활동으로는 농산물 판매(2.70점)와 농산물가공(2.13점)임
- 연령별로는 49세 이하에서는 농산물 판매(3.29점) 와 농산물 가공(2.79점)이었으며 50대는 농산물판매(2.73점)에서 참여의향이 높음
- 영농규모별로는 소농에서 농외소득 활동참여의사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향후 농외소득 활동참여 의사(중복응답)

(단위: 명, 점)

구분	N	활동 유형							
		농산물 가공	농산물 판매	농촌 관광 사업	자영업	일반 직장 취업	시간제 근무	농업 임금 노동	
계	295	2.13	2.70	1.71	1.81	1.71	1.78	1.87	
연령	49세 이하	52	2.79	3.29	2.35	2.48	2.29	2.17	2.21
	50대	133	2.16	2.73	1.67	1.91	1.79	1.87	1.80
	60대	110	1.79	2.38	1.45	1.38	1.34	1.48	1.79
영 농 규 모	소농	55	2.22	2.38	2.00	1.93	2.00	2.18	2.09
	중농	87	1.78	2.46	1.54	1.63	1.55	1.64	1.75
	대농	153	2.30	2.95	1.70	1.88	1.69	1.71	1.86

주. 향후 활동 의향 정도는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평균값이 1에 가까울수록 매우낮음. 5에 가까울수록 매우 높음.



□ 농외소득 활동 이유 및 애로사항

-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추가소득 마련이 38.2%, 생활비 부족 28.3% 등으로 경제적인 이유가 전체 44.2%에 해당함
-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시간부족(21.9%)임
  - 49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시간부족을 제외하면 기회 및 정보, 자본이 부족하다는 비율이 높고 50대는 능력부족이나 자신감 부족 등을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음

〈표 8〉 농업생산 이외의 소득활동 이유 및 애로사항

(단위: 명, %)

활동이유	구분	N	능력부족	기회정보부족	자본부족	인맥부족	신체한계	자신감부족	가족반대	시간부족	판매어려움	필요없음	기타	
														계
생활비부족	계	274	14.6	13.5	9.1	1.8	15.0	4.0	3.3	21.9	4.0	10.2	2.5	
추가소득 마련	연령	49세 이하	50	12.0	16.0	18.0	4.0	2.0	4.0	6.0	22.0	6.0	6.0	4.0
		50대	121	15.7	14.0	9.9	1.7	6.6	5.0	4.1	24.0	5.0	11.6	2.5
		60대	103	14.6	11.7	3.9	1.0	31.1	2.9	1.0	19.4	1.9	10.7	1.9
재능활용	연령	소농	47	21.3	19.1	17.0	0.0	17.0	2.1	0.0	4.3	2.1	17.0	0.0
		중농	84	20.2	11.9	3.6	2.4	22.6	6.0	2.4	16.7	2.4	9.5	2.4
		대농	143	9.1	12.6	9.8	2.1	9.8	3.5	4.9	30.8	5.6	8.4	3.5
사회생활 희망	계	6												
활동의향없음	계	17												
기타	계	2.1												

3) 여성농업인의 인식과 지역사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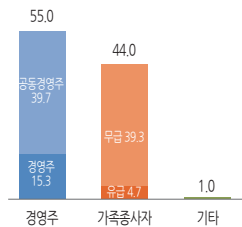
□ 직업적 지위에 대한 인식

- 여성농업인은 자신을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은 55.0%, 가족종사자로 인식은 45.7%임
  - 본인의 영농지위를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인식하는 경우는 55.0%로 이는 전국여성농업인실태조사(2013년) 결과인 42.0%와 비교하여 볼 때 13.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가족노동에서 농업노동 투하량이 45.7%<sup>4)</sup>수준에 달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크지만 정착 현실에서는 본인을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비율도 39.3%나 됨

〈표 9〉 직업적 지위

(단위: 명, %)

구분	N	경영주		가족종사자		기타	
		경영주	공동경영주	유급	무급		
계	295	15.3	39.7	4.7	39.3	1.0	
연령	49세 이하	52	15.4	44.2	3.8	32.7	3.8
	50대	133	10.5	45.9	5.3	38.3	0.0
	60대	110	20.9	30.0	4.5	43.6	0.9



4) 농가경제조사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전북 남성농업인은 가족노동력에서 439.07시간을 여성농업인은 370.24시간 일하고 고용노동에서는 남성농업인은 23.79시간, 여성농업인은 39.78시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됨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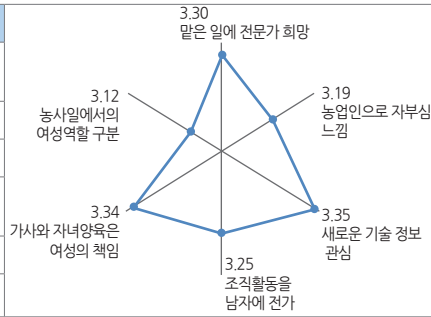
□ 농업 및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 여성농업인은 농업에서의 전문가를 희망하고 지역사회활동에도 적극참여의사를 보임
  - 농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농사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 반면, 농협이나 생산자 조직활동 등은 남자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높음

〈표 10〉 농업 및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내가 짓는 농사와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295	3.30
농업인으로서 직업적 자부심을 느낀다	295	3.19
새로운 농업 기술, 정보에 관심이 많다	295	3.35
농협이나 생산자 조직 활동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	295	3.25
지역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295	3.34
지역의 사회활동에서 남녀 차별을 느낀다	295	3.12



주. 평균값이 1에 가까울수록 전혀 그렇지 않다, 5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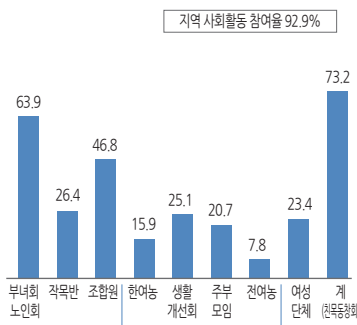
□ 여성농업인 단체가입 및 활동참여도

- 여성농업인의 단체가입률은 친목도모 성격이 강한 ‘계(친목, 동창회)’와 ‘마을부녀회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여성농업인단체 참여는 비교적 소수에 불과함
  - 여성농업인이 1개 이상의 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은 92.9%로 높지만 분야별로는 계(친목, 동창회)73.2% > 마을부녀회(또는 노인회)63.9% > 조합원46.8% 순임
  - 여성농업인의 권익활동에 관련된 여성농업인 단체가입률은 7~25% 수준으로 비교적 낮음. 참여정도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참여 및 적극적인 활동은 한여농(한국여성농업인단체)과 전여농(전국여성농민회)에서 높게 나타남.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은 주 영농활동 연령층에 해당하는 50대를 중심으로 활동참여도가 높게 나타남

〈표 11〉 여성농업인의 단체가입 및 활동참여도

(단위: 명, %)

구분	(회원인 경우) 참여 정도				계	
	참여 안함	비정기적 참여	정기적 참여	적극참여 (임원활동)		
마을 부녀회 (또는 노인회)	3.7	19.3	58.8	18.2	187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4.0	21.3	53.3	21.3	75	
농수축협 조합원	8.1	37.0	43.7	11.1	135	
여성농업인단체	한여농	-	13.3	60.0	26.7	45
	생활개선회	2.9	20.0	47.1	30.0	70
	농가주부모임	5.1	22.0	54.2	18.6	59
	전여농	4.3	17.4	43.5	34.8	23
지역 여성단체	1.5	11.8	63.2	23.5	68	
계(친목, 동창회)	1.9	10.8	70.9	16.4	213	



#### 4) 여성농업인의 정책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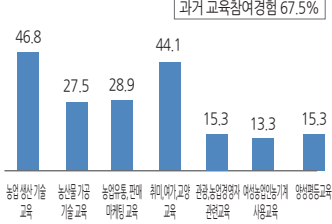
##### □ 교육 경험 및 교육 참여확대 개선사항

-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경험은 농업생산·기술교육과 취미·교양교육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이 과거 받은 교육은 대부분 농업생산·기술교육이 많았으며 6차 산업과 관련된 농산물가공 교육 및 유통·판매·마케팅 교육, 농촌관광 교육은 참여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에서 교육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2〉 여성농업인 교육 경험 및 교육 참여확대 개선사항

(단위: 명, 점)



구분	N	대체 인력	아이 돌보미	저녁 교육	근접성	농한기 교육	가족의 지지
계	295	3.44	2.79	3.60	3.95	3.86	3.46
연령	49세 이하	52	3.65	3.46	3.83	4.13	3.88
	50대	133	3.50	2.89	3.64	4.01	3.95
	60대	110	3.28	2.35	3.44	3.79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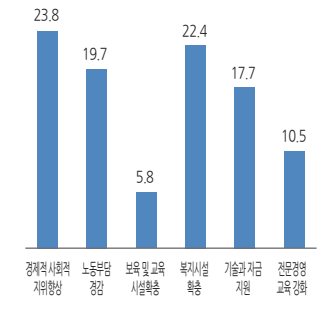
##### □ 여성농업인에게 시급한 과제

- 농업활동과 농촌생활 가운데 여성농업인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제사회적 지위향상'(23.8%)과 '복지시설 및 제도 확충'(22.4%)으로 조사됨

-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여성농업인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 시각은 연령이 높을수록 대농보다는 소농과 중농에서의 응답율이 높게 나타남.  
 -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다음으로 응답율이 높은 '복지시설 확충 및 제도확충'에 대해서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그리고 영농규모에서는 소농에서 응답률이 높았음  
 - 한편 40대에서는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자금 지원'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남

〈표 13〉 여성농업인에게 시급한 과제

(단위: 명, %)



구분	N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노동 부담 경감	보육 교육시설 확충	복지 시설 확충	기술·자금 지원	전문경영 교육강화
계	294	23.8	19.7	5.8	22.4	17.7	10.5
연령	49세 이하	52	21.2	15.4	11.5	11.5	21.2
	50대	133	23.3	21.1	6.8	24.8	15.8
	60대	109	25.7	20.2	1.8	24.8	18.3
영농 규모	소농	55	29.1	16.4	5.5	27.3	9.1
	중농	86	29.1	14.0	7.0	22.1	20.9
	대농	153	19.0	24.2	5.2	20.9	19.0

11

□ 정책추진 사업 수요도

- 전북여성농업인이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정책 사업으로는 의료서비스(4.08점)>목욕탕(3.91점)>노인공동생활관(3.58점)> 문화쿠폰(3.55점)등에서 수요도가 높게 나타남
- 정책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49세 이하는 문화쿠폰과 농업인력은행을 50대와 60대에서는 의료서비스와 목욕탕에 대한 정책요구도가 높게 나타남

〈표 14〉 정책추진 사업 수요도

(단위: 명, 점)

구분	N	공동 급식	도시락 배달	공동 작업장	목욕탕	보육 시설	농업인력 은행	도서관 공연장	노인 공동 생활관	문화 쿠폰	의료 서비스	
계	295	3.45	3.47	3.04	3.91	3.08	3.46	3.07	3.58	3.55	4.08	
연령	49세 이하	51	3.25	3.44	3.42	3.73	3.73	3.83	3.58	3.54	3.96	3.83
	50대	132	3.41	3.46	3.04	3.89	3.15	3.48	3.16	3.63	3.68	4.05
	60대	110	3.60	3.50	2.86	4.02	2.69	3.27	2.72	3.54	3.19	4.23
영농 규모	소농	55	3.35	3.27	3.13	3.71	3.04	3.25	3.11	3.73	3.49	4.02
	중농	87	3.49	3.39	2.93	4.01	2.74	3.14	2.85	3.37	3.32	4.15
	대농	151	3.47	3.59	3.07	3.92	3.30	3.72	3.18	3.64	3.70	4.06

주. 평균값은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필요, 5에 가까울수록 매우 필요.

### 3. 정책적 함의 및 향후과제

#### 1)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을 위한 공동경영인등록제도 활성화

- 농업인구에서 여성의 비중(2014년 기준 53.3%)이 확대되고 농업활동에서의 여성노동 투자량(가족노동에서만 45.7%)이 증가하고 있지만 본인의 직업적 지위를 무급의 가족종사자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고 농업활동 관련 의사결정 참여가 저조하여 현실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은 편임
-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은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시급한 선결과제로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16~'20년)에서는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인정하기 위한 시행규칙(농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공동경영인 등록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공동경영인등록제도를 위한 정책홍보와 관련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 있음

▶ 공동경영인등록제도

공동경영주 인정은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이 강하며 등록된 여성 경영주는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향후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로 인정됨에 따라 부부간의 경영협약이 새롭게 주목 될 가능성 높아 그동안 정체되었던 농가경영협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됨

## 2) 여성농업인의 역할확대에 따른 40~50대 전문인력화 필요

- 본 조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농촌의 40~50대 여성은 영농활동의 주요 핵심인력으로서 농업생산에서 오랜 경험과 농촌자원을 활용할 노하우 등을 갖고 있는 등 경쟁력 있는 농촌인력에 해당함
- 농업이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의 주체, 교육체험 제공자로서 여성농업인의 활동력이 나타나고 사업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음
- 6차 산업인 농산물가공이나 체험교육장 등에 관심이 있는 40~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일감갹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업생산기술, 농산물가공기술, 농산물유통·마케팅 기술 등 실질적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을 통해 이들을 전문인력화하는 방안필요

## 3)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정비

-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전라북도에 여성농업인육성 조례를 제정한 곳은 도와 4개의 기초자치단체(임실군, 남원시, 익산시, 정읍시)에 불과함
- 양성 평등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 주류화를 실현해야 함.
  - 농업관련 조례 가운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필요한 조례가 상당 수 존재함.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문구수정 및 위원회 목표율, 관련 사업수혜의 양성 평등한 시행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조례의 일괄 개정검토가 필요

조례명	해당 조항	현재	개정안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 및 농어업인들의 책무)제1항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사업(대상)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전라북도 삼각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운영협의회와 분과회의로 구성하며, 운영협의회는 분과별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분과회의는 분과별 1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운영협의회와 분과회의로 구성하며, 운영협의회는 분과별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분과회의는 분과별 1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는 영세한 고령농업인을 위한 관련 조례제정 필요

- 전북의 60세 이상의 농가인구는 전체 농가인구의 50.2%(125,845명)를 차지하고 있고 60세 이상의 인구는 여성노인인구가 12.5% 더 많음. 농촌의 고령농업인은 본 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영세한 농가로 경제적 빈곤이 심각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함
- 각종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경영비를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하고자 몇몇 지자체는 「고령농업인영농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조례제정 검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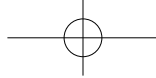
구분		조례명
경기	경기도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여주시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강원	강원도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양양군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지원 조례
전북	순창군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임실군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충남	충청남도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아산시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홍성군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경북	경북도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전남	곡성군	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주: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영농지원조례」는 그 내용이 다소 상이함. 벼농사 영농경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순창, 임실, 강원도)와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을 고려해 소득, 농작업지원, 복지증진, 교육문화까지 폭 넓게 지원하는 조례(경기도, 충남, 경북)등으로 구분 할 수 있음

4)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 여성농업인 육성이나 여성농업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단체간 네트워크와 조직활동이 중요함
  - 여성농업인 단체는 생활의 기초단위인 읍면단위까지 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여성농업인의 요구 등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브릿지 역할이 필요함
-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한 목소리로 정책을 요구하는 등 상향식 정책제안이 필요하지만 관련 경험과 사례가 없음<sup>5)</sup>
  - 강원도 횡성군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과 단체 간 협력사업은 지금까지의 여성농업인 정책사업이 개별단체에 지원되는 방식으로 정책효과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범사례에 해당함

5)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 (2/2차연도), 정은미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 여성농업인단체간 협력체계구축 사례: 강원도 횡성군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

※목적

- ① 여성농업인 삶의 질과 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
- ② 여성농업인이 지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 ③ 여성농업인이 여성성을 살려 가장 잘할 수 있는 소득 특화사업 추진

※연합사업

- 공동사업 발굴, 여성농업인 정책개발
- 여성친화적 친환경농업 기술보급과 정보교류, 영농 및 생산지도 등
-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신청으로 공동교육 사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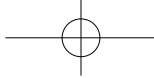
※2013년 사업

- 여성농업인 소득향상사업
-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조례연구
-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문화체험

자료 :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2/2차연도), 정은미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5) 농촌여성자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추진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에 농촌여성 지원을 위한 지정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여성농업인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나 체계가 없어 별도의 사업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농촌여성 역량강화나 복지증진 관련 사업추진 활성화가 어려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정 공모사업 분야를 신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주팔쥐로 1696(효자동3가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http://www.jthink.kr)

